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문제 풀이 시간은 평소 독서/문학 푸는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세요.

파이팅!
그림
3,
2,
1,
START!

둔 연계교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검증된 지문!
평가원의 영혼을 담은 문항으로 독해력 점검까지 챙기세요.

참고 자료:
EBS 연계교재
논문
출제자의 뇌
AI

25학년도 수능 모델링 (지문, 문제, 선지 구성 참고)
26학년도 모의평가 모델링 (선지 구성 참고)

FNQ. 문제 만드는 이유:
연계교재 내용 공부하려고.
내년에 과외할 때 도움 되려고.
포트폴리오.

Powered by 민민.

선후관계 도치, 항 잘못 짝짓기,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
보기 조건 누락.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결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이고 균질적인 공간을 유토피아로 규정하고,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헤테로토피아**를 제시했다. 헤테로토피아란, 현실 세계 안에 실재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현실과는 이질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기존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 체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것에 반하는 질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反)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는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안과 해방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단순히 이질적인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대항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이 공간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상상하고 현실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회든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며, 이 공간은 다수를 위해 확일적으로 만들어진 공간과는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헤테로토피아는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푸코가 제시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예술, 특히 1920년대에 등장한 ㉠ **초현실주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초현실주의는 합리주의를 숭배하는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탐구하는 예술 혁신 운동이었다.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브르통은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상력과 무의식을 통해 예술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상상력은 사회에서의 인간 해방을 이끄는 혁명적 힘이였다. 이처럼 주어진 현실 세계를 넘어서려는 주체의 내면적 작동을 중심 원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공간은,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와 그 바탕을 ㉡ **공유한다**.

(나)

독일의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인간이 이성만으로는 세계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개념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불안을 느끼며, 이 불안을 길들이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은유를 사용한다. 그는 전통 철학이 은유를 단순히 명료한 사실을 꾸미는 수사적 장식이거나, 아직 명확한 개념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으로 폄하해왔다고 비판했다. 블루멘베르크는 이러한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은유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우리 사유의 근본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다.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가 시작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그것은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이미지처럼 이성으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진리는 빛이다’라는 절대적 은유가 없다면, 우리는 ‘진리’라는 추상

적 개념을 향한 탐구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 은유는 사유의 대항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개념의 질서를 넘어서는 다른 말(言)인 셈이다.

㉢ **블루멘베르크의 은유학**은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은유라는 언어적 창조 행위를 통해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다. 신화의 의미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선택되듯이, 인간은 은유를 통해 세계를 끊임없이 재해석한다. 결국, 은유는 상상력으로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방식인 것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이전에, 현실과 이질적인 반(反)공간으로서 먼저 존재한다.
- ② (가): 브르통이 상상력과 무의식을 통해 예술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합리주의를 숭배하는 시대적 풍조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
- ③ (가): 헤테로토피아는 다수를 위한 확일적인 공간과 달리 개별적이고 비균질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사회의 통합보다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나): 절대적 은유는 개념적 사고가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개념적 사고의 바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⑤ (나):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이 은유를 불완전한 인식으로 간주하여 그 중요성을 폄하했다고 보고, 절대적 은유의 기능이 사유의 근본 바탕을 장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5.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에서의 이질적인 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와 구별된다.
- ② 현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행하는 대항 공간의 기능을 통해, 기존 권력 체계에 반하는 반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③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확일적인 공간과 달리 다양한 계층의 고유한 문화를 담보함으로써 복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 ④ 누군가에게 위안과 해방을 주는 긍정적 공간이 될 수 있지만,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⑤ 현실 전복을 시도하고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주체의 내면적 작동을 통해 사회의 해방을 추구했던 초현실주의와 철학적 바탕을 공유한다.

6. (가)의 ‘푸코’와 (나)의 ‘블루멘베르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이성은 현실의 모든 질서를 궁극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② 인간이 창조한 예술과 언어는,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그것을 모방하는 이차적인 활동이다.
- ③ 인간이 상정한 지배적인 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은 인간이 세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공간이 된다.
- ④ 인간은 현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불안을 느끼므로 객관적인 법칙을 통해 예측 불가능성을 약화시켜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 ⑤ 사회의 발전은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수성들을 보편성 아래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순수한 상상력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적 사고의 바탕으로 삼는 절대적 은유의 가치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② ㉠이 인간 해방을 위해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는 혁명적 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 압도적인 현실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 ③ ㉠이 비합리적인 것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것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이 현실에 수동적인 기존 예술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은유를 단순히 현실을 꾸미는 수사적 장식으로 보았던 전통 철학을 비판하는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⑤ ㉠이 비합리적인 것을 탐구함으로써 현실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 절대적 은유를 통해 세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시도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느 영화감독이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제 영화가 관객들에게 낯선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은 현실을 비추지만, 제 영화 속 거울은 일상의 공간을 뒤틀고 변형시켜, 관객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의 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예를 들어, 평범한 거실에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이 과연 안전한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세계는 과연 질서정연한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낯선 거울을 통해 관객 각자가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를 기대합니다.”

- ① 감독이 낯선 거울을 통해 현실의 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것은, (가)의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의 대항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연결지을 수 있겠군.
- ② 감독의 영화가 집이라는 공간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가)의 헤테로토피아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곳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설명과 맞닿아 있군.
- ③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낯선 거울에 비유하는 것은, (나)의 블루멘베르크가 말한 절대적 은유를 창조함으로써, 개념적 사고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바탕을 열 수 있겠군.
- ④ 감독이 거대한 폭포라는 비현실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가)의 초현실주의가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탐구했던 시도와 그 지향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감독이 관객 각자가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의 블루멘베르크가 인간은 은유를 통해 세계를 끊임없이 재해석한다고 본 관점과 유사하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축구팀 선수들은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다.
- ② 그는 내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공유했다.
- ③ 이 도서관은 지역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이다.
- ④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푸른 눈동자를 공유한다.
- ⑤ 나와 내 친구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모아 임대료를 공유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 분야에서 에이전트란, 감지기를 통해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작동기를 통해 환경에 동작을 수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오직 현재의 지각 정보에만 의존하여 사전에 규정된 동작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야가 가려지는 등 환경의 일부를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동작을 선택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추론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의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합리적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현재 세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자신의 내부에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 즉 내부 모형을 가진다. 이 내부 모형은, 에이전트의 동작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이 모형과, 환경의 상태가 감지기에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감지기 모형으로 구성된다. 에이전트는 이 모형을 활용하여, 과거의 지각 정보와 자신의 행동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관측되지 않는 환경의 상태까지 추론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갱신할 수 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 에이전트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에 대한 정보, 즉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내부 모형에 목표 정보를 결합하여,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일련의 동작들을 탐색하고 선택한다. 그러나 목표의 달성 여부는 성공 또는 실패라는 이분법적 결과만을 제공한다. 이보다 더 정교한 판단을 위해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라는 기준을 내장한다. 성과 측도는 각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효용 함수를 통해,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능한 경로 중 가장 효율적이거나 안전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모형, 목표, 효용이 모두 사전에 주어진 것이라면, 에이전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학습하는 에이전트이다.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부 지식을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한다. 이 학습 과정은 하나의 순환적인 고리로 이루어진다. 먼저, 에이전트의 행동 전체를 책임지는 수행 요소가 특정 동작을 실행한다. 그러면 비평자가 고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 그 행동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습 요소는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수행 요소의 내부 모형이나 효용 함수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생성기는 때로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전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지 않았던 탐험적 동작을 수행 요소에 제시하여 새로운 학습 경험을 유도한다.

10.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단순 반사 에이전트의 한계가 제시된 것을 보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서술될 것임을 예측하며 읽는다.
- ② 2문단과 3문단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문단이 현재 상태의 파악에 대해, 3문단이 미래 상태의 설정 및 경로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중심으로 읽는다.
- ③ 4문단에서 학습하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한다고 서술된 것을 보고, 이것이 2문단과 3문단에서 설명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발전된 단계임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④ 3문단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와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언급된 것을 바탕으로, 두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경쟁적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며 읽는다.
- ⑤ 4문단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순환적인 인과관계로 그 역할을 정리하며 읽는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전이 모형을 통해 자신의 동작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관측되지 않는 환경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 ②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를 활용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내부 모형을 수정한다는 점에서 유연하다.
- ③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가 제시한 탐험적 동작을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비평자에게 전달하여 학습을 진행시킨다.
- ④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효용 함수를 통해 각 상태의 바람직함을 판단하는데, 이는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성공 또는 실패라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⑤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현재 지각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과거의 지각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의 목표를 설정한다.

12. 합리적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목표 정보를 결합하여 합리적 동작을 선택하지만,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은 결여되어 있다.
- ② 환경에 대한 지각과 내장 지식을 바탕으로 성과 측도에 부합하는 동작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결과의 최적화를 지향한다.
- ③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비평자의 피드백을 통해 기존의 합리적 선택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한다.
- ④ 문제 생성기는 현재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탐험적 동작을 제시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동작에서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 ⑤ 합리적 에이전트의 궁극 목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타파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냄에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율주행 자동차 에이전트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계 1) 전방 카메라(감지기)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위험'으로 지각하고, 사전에 입력된 '만약 장애물이 나타나면, 즉시 정지한다'는 규칙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는다(작동기).

(단계 2) GPS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내장된 지도 정보(내부 모형)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예측하여 현재 차량의 상태를 갱신한다.

(단계 3) 최종 목적지(A 호텔)라는 목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도달 가능한 여러 경로(경로 X, 경로 Y)를 탐색한다.

(단계 4) 각 경로의 예상 소요 시간, 통행료, 교통 체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가장 편안하고 빠른 길'이라는 성과 기준에 따라, 경로 X가 경로 Y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경로 X를 선택한다.

- ① (단계 1)은 단순 반사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으로, 관측 불가능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 ② (단계 2)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가 내부 모형을 활용하여, 감지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재의 교통 상황을 추론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 ③ (단계 3)은 (단계 2)에서 파악한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바람직한 미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동작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 ④ (단계 4)는 효율 기반 에이전트가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를

넘어, 각 경로의 성과 측정치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정교한 판단 과정이다.

- ⑤ (단계 2)에서 (단계 4)로의 발전은, 합리적 에이전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 모형의 정확성을 스스로 수정해 나가는 학습 과정에 해당한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사회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며,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 사회학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을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등장했다. 하나는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한 ㉠로버트 머튼의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존 버널의 시각이다. 이 두 학자의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과학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을 가졌던 머튼은, 과학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를 과학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유지해 온 내부 규범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서로를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며, 네 가지 사회적 규범을 통해 과학 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첫째, 보편성 규범은 연구의 타당성이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비인격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둘째, 공유성 규범은 모든 과학적 발견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공유되어야 함을 말한다. 셋째, 탈이해관계 규범은 과학자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진리 탐구만을 추구해야 함을,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은 모든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머튼은 바로 이 내부 규범들이 사회의 일상적인 이해관계가 과학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머튼의 주장은 전체주의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그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소련에서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들 사회가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적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주의는 복종을 강요하여 조직화된 회의주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우수한 독일 과학과 저열한 유대인 과학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보편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머튼에게 과학은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이며,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머튼과 달리, 사회주의자였던 버널은 과학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 변화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의 잠재력이,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버널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과학 연구는 인류의 복지와 무관한 군사 연구에 집중되거나, 지배 계급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게 되는 등 비효율성과 비인간성을 낳게 된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을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버널은 머튼이 옹호하는 순수 과학 개념 자체를 엘리트주의적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순수 과학이 기술 및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는 것은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상이 실현된 사례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찾았다. 소련 정부가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과학자들을 참여시킨 것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버널에게 과학의 진정한 가치는 상아탑 속의 순수성이 아니라, 인간 해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에 있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머튼은 과학자 공동체의 내부 규범이 사회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과학 지식의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 ② 머튼은 과학적 발견이 동료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유성 규범을 통해 개별 과학자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머튼은 전체주의 사회가 과학의 보편성 원리를 부정하는 것을, 과학 발전이 저해된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 ④ 버널은 순수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는 태도가 과학의 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그 물적 기반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 ⑤ 버널은 정부의 개입이 부재할 경우, 연구 자원이 사회 발전과 무관한 분야에 집중되어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학 활동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만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은 과학 활동이 사회적 목적에 복무함으로써 그 잠재력이 제어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은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이 침해될 때 과학의 객관성이 훼손된다고 보았고, ㉡은 과학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연구 분야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은 과학 지식이 사회 발전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했으며, ㉡은 과학 지식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과 ㉡은 모두 과학이 전체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 체제와 결합할 때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 ⑤ ㉠은 과학의 순수성을, ㉡은 과학의 실용성을 각각 과학의 본질적 가치로 제시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과학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는 공유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21세기 들어 거대 IT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A 기업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

원칙 1: 우리의 모든 연구 결과는 동료 심사를 거쳐 학회에 즉시 발표하고, 소스 코드는 오픈 소스로 공개하여 전 세계 모든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 2: 우리는 인류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응용 연구에 집중하며, 연구 주제 선정 시에는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순수 이론 연구는 대학에 맡긴다.

- ① 머튼의 관점에서, 원칙 1은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을 존중하고 지식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유성' 규범에 부합하는군.
- ② 머튼의 관점에서, 원칙 2가 연구 주제 선정 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는 점은, 과학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입장과 일부 충돌하는군.
- ③ 버널의 관점에서, 원칙 2는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연구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연구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그의 이상과는 차이가 있군.
- ④ 버널의 관점에서, 원칙 1이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연구 범위를 응용 연구로 제한하고 순수 이론 연구를 배제하는 것은 과학의 물적 기반을 경시하는 태도이군.
- ⑤ 머튼과 버널은 모두, A 기업의 연구 활동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 증대나 이미지 제고라는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탈이해관계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군.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 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 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린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나)

Like sea, like ocean
나의 안식이 기다리지
있나 내게도 드디어
구름꽃 너머 꿈이 아니야
나의 날 온 거야

마음을 놓아
이곳에서 날 불러
눈물은 닦고
달려온 나의 저 길을 바라봐

아나 잠시
들뜬 사이
가라 말할까 두려워
하나 마음에 숨이 붙어
하나 바람 온도를 느껴
아- 그래 내가 바란 거야

마음을 놓아
이곳에서 날 불러
눈물은 닦고
달려온 나의 저 길을 바라봐

마음을 놓아
이곳에서 날 불러
눈물은 닦고
달려온 나의 저 길을 바라봐

- 송소희, 「Not a Dream」-

(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다.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일단 어딘가에 집착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면 그 웅덩이에 갇히고 만다. 그러면 마치 고여 있는 물처럼 썩기 마련이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뉘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쉽다. 그러나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말이 있듯 행복을 찾는 오묘한 방법은 내 안에 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청빈의 덕이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일단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 법정,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복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닌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병치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에 대한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내면적 성숙의 과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이별의 상황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연의 순리이자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한다. 그리움은 미성숙한 자아로서 드러나지만, 고통의 공간에서 인내 끝에 자아는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로 변모한다.

- ① ‘바람’이나 ‘햇살’뿐만 아니라 ‘오색딱다구리’와 ‘청설모’도 감나무 잎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은, 이별을 자연의 섭리 속에서 수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② ‘그리움’이 ‘땡감들’로 자라난다는 표현은, 이별 후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미성숙한 자아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③ ‘흰 구름’을 이고 ‘장대비’를 맞는 시련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은, 고통의 시간을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함을 드러낸다.
- ④ ‘기다림’의 시간 끝에 ‘서러움까지 익어’ 마침내 ‘등불’을 밝히는 감의 모습은, 화자의 슬픔이 내면적 성숙에서 머무르게 됨을 드러낸다.
- ⑤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라는 구절은, 이별의 고통이 미래의 이상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로 변모함을 드러낸다.

20. (나)의 ‘마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마침내 도달한 안식의 공간이자, 외부 세계와 교감하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 ②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행복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기 회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 ③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종적인 자기 긍정에 도달하게 하는, 성숙의 계기를 제공한다.
- ④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던 과거의 기억을 소거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 ⑤ 반복적인 명령의 대상이 됨으로써, 화자가 안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는 오랜 시련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내면의 안식에 도달한 화자의 심리적 여정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감각적 심상을 통해 평온의 상태를 암시한다. 그러나 내면의 성취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화자의 과거가 남긴 불안을 드러낸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감각적 행위를 통해 전환된다. 화자는 자신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최종적인 자기 긍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Like sea, like ocean’이나 ‘구름꽃 너머’와 같은 표현은, 화자가 도달한 평온의 상태를 암시하는군.
- ② ‘가라 말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은, 화자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안식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③ ‘바람 온도를 느껴’보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외부적 환경을 통해 판단하려는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④ ‘달려온 나의 저 길을 바라봐’라는 구절은, 과거의 시련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여 최종적인 자기 긍정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⑤ ‘마음을 놓아’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은, 화자가 마침내 불안을 받아들이고, 안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군.

2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개인의 내면적 성숙을 외부 세계와의 단절에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는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소멸시키려는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한 결과로 얻게 된 깨달음을, ㉡는 바람직한 삶의 결과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와 ㉡는 모두, 외부 세계의 물리적 밝음이 개인의 내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⑤ ㉠와 ㉡는 모두,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순리에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임을 역설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그는 현대인의 정신적 빈곤의 원인을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삶의 태도를 역설한다. 긍정적 태도와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자유로운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 ①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내면의 집착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 ②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은, 물질적 소유의 관점을 벗어나 정신적 관점에서 풍요를 재정의하는 것이겠군.
- ③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것은, 행복이 객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겠군.
- ④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은, 소유가 필연적으로 집착을 초래함을 나타내는군.
- ⑤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온다’는 것은, 긍정적 태도를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